
既婚女性の 婚姻狀態別 生活時間 配分實態와 效率化 方案에 관한 研究

金勝權* · 宋秀琺**

최근 자원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 기초적 단위로서 시간의 가치활용도를 높이고 인간관계의 맥락을 심화시키며, 그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시간의 양(quantity)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분야 및 항목에 얼마나 배분하는가에 따라 시간의 질(quality)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1999년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기혼여성의 혼인상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생활시간 배분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으며, 아울러 효율적 시간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하는데 있다.

주요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은 혼인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여부도 생활시간 배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이혼부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배분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연구는 우리나라 부인의 혼인상태, 연령, 경제활동참여 및 직업유형 등의 특성에 따라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 용어: 생활시간, 혼인상태, 경제활동, 직업유형, 가족공유시간

筆者: * 本院 人口家族팀장, ** 本院 主任研究員

▶ 원고를 검토하여 주신 李台眞 招聘研究委員과 曹愛姐 責任研究員께 감사드립니다.

I. 序 論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으로 주어져 있으나, 개인의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여부, 직업유형, 개인적 성향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및 주관적 가치관 특성에 의하여 달리 지각되고 배분된다. 시간의 소비는 에너지의 소비이며, 시간의 '質'은 사용된 시간의 흐름 그 자체보다는 시간을 구성하고 있는 생활내용이 무엇이며,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管理 및 使用하였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한다(문숙재, 1996). 따라서 자원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시간의 가치활용도를 높이고 인간관계의 맥락을 심화시키며, 그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시간의 양(quantity)이 어느 누구에게나 일정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분야 및 항목에 얼마나 배분하는가에 따라 시간의 질(quality)은 달리 나타난다는 것으로 '시간'을 效果的, 效率的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量的 限界를 초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199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 조사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생활시간 배분이 혼인상태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 배분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시간활용의 특성을 검토하고, 둘째, 부인연령, 경제활동여부, 직업유형 등 주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생활시간의 배분이 달리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며, 셋째, 도출된 시간배분상의 문제점에 기초하여 자원으로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제 특성별 생활시간 배분구조에서 나타난 다양한 양상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고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연구는 우리나라 부인의 혼인상태, 연령, 경제활동참여 및 직업유형 등의 특성에 따라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理論 및 先行研究

1. 生活時間 관련 主要 概念 및 理論

개인이 매 시간, 일, 주, 월, 연, 그리고 생애 등의 일정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용어는 생활시간(time use), 시간예산(time budget), 시간배분(time allocation), 시간사용(time use) 등 다양하다. 이들 용어의 의미는 유사하지만 국가와 학문영역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한다.¹⁾

생활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榎井光映(1981)은 “생명의 유지·계승을 위하여 어떤 형태의 기능이 어느 정도의 시간에 영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서병숙·임정빈(1983)은 “1일의 생활내용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라 하였다. 김외숙 외(2000)는 ‘생활시간’이라는 용어의 ‘生活’이 ‘勞動’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는 판단²⁾에 따라 생활시간 대신 시간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1) 예를 들면, 서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통계에서는 ‘시간예산’, 경제학에서는 ‘시간배분’, 사회학에서는 ‘시간사용’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정학에서는 ‘시간사용’을 가장 흔히 사용하면서 ‘시간배분’ 및 ‘시간예산’을 혼용하기도 함. 일본에서는 ‘생활시간’이라는 용어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NHK가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 용어가 정착되었다고 하겠음(김외숙 외, 2000).

다. 즉, 시간을 “다양한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하루 24시간뿐만 아니라 생애동안의 시간사용을 모두 포함시켰다.

베커(Becker)는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시간의 희소성을 인식하여 시간 자원을 종래의 재화자원에 추가시켜 경제학적 이론으로 설명하고, 가정을 생산단위로 간주하여 시장재화와 가족구성원의 시간이 서로 결합되어 음식물, 깨끗한 옷, 사회화된 어린이 등의 가정생산품(z-commodities)이 생산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체 가족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간배분은 재화 및 시간의 가격과 소득의 함수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시간을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효용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간의 價格 또는 費用의 측정을 위하여 기회비용(opportunity)의 개념에 기초한 노동시장에서의 成果 또는 生産性을 나타내는 賃金率을 활용하였다.

파킨슨(Parkinson)의 법칙은 인간은 특정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종료 시간이 없는 작업을 할 경우 마지막까지 시간을 채우게 될 것이므로 결국 작업을 위한 마감시간을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즉, 資源의 浪費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體系理論은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의 변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전체 변화를 이끌게 되므로 投入, 過程, 產出 등 세 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체계적 개념 하에서 시간관리를 통제하게 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체계이론적 측면에서 時間管理는 시간의 전반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위체계로서 각 시간의 적절한 배분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문숙재, 1996).

종합적 시간사용 모델(Consolidated Time Use Model)은 펠드만과 호

2) 가와키다 미모루(川北)는 前工業化 社會에서는 노동 및 여가가 결합되어 있었지만, 工業化 社會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인 근로자의 시간은 자본가에게 판매한 ‘노동시간’과 판매되(하)지 않은 ‘비노동시간’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생활시간’, ‘여가’라고 하였음.

르닉(Feldman & Hornik, 1981)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시간, 소비자, 의미 등 세 영역으로 나누고 환경변인을 추가하여 시간개념을 설명한다. 동 모델은 소비자가 여러 자원과 환경요소를 감안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이 결과가 소비자의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 主要 先行研究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 경제학, 가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생활시간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연구는 최초로 1924년 구 소련에서 실시된 노동자의 시간연구이다. 이는 직업별 노동시간실태, 적정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관한 규칙과 표준작성 등 노동에 초점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가사시간, 자유시간, 이동시간 등도 아울러 조사되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여가에 중점을 둔 시간연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영국과 일본에서는 방송회사에서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실용적 관심에서 생활시간사용을 조사하였다. 영국에서는 1939년에 BBC 방송국에 의하여, 일본에서는 NHK 방송국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시간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헝가리의 살라이(Szalai)는 1964~1966년 기간 중 유럽 12개국의 생활시간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1972년에 '시간사용'(The Use of Time)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7~1979년에 실시한 NE113 프로젝트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California, Connecticut, Louisiana, New York, North Carolina, Oklahoma, Oregon, Texas, Utah, Virginia, Wisconsin 등 11개 주에서 실시되었으며 두 자녀를 둔 양부모 가족 2,1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보다 다양화, 세분화되었는데, 가족원을 남편과 주부로, 주부는 전업주부, 취업부인, 시간제 취업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편부모 및 양부모, 인종별, 직업지위별, 국가

별로 확대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으로는 자녀들의 생활시간, 가사노동, 여가시간 등에 관한 내용이 많으며, 특히 최근에는 가족생활에 투입되는 시간을 활용하여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생활시간에 관련된 연구의 주요 주제는 취업부인의 생활시간구조, 가사노동시간, 시간의 가치측정, 자녀의 생활시간 등이며, 이 외에도 효율적 시간관리자,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 비교연구 등이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일본에서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 연구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의 생활시간에 관련된 주요 연구는 가정학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에 따라 취업부인의 就業勞動과 家事勞動의 二重負擔에 관한 것이다.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맞벌이 가정의 생활구조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가족돌보기, 시장보기,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의·식·주 생활관리, 육아 및 교육활동 등의 생활양식변화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문숙재, 1996에서 재인용). 또한 NHK에서 5년마다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1일 생활행동을 파악하여 방송프로 제작과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생활시간연구는 시간의 價値測定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족효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가족원간의 시간배분, 가족구조가 자녀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반 사회정책이 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가정학에서 196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주요 연구영역은 시간사용구조, 가사노동시간, 가사작업간소화, 여가, 시간관리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김외숙 외, 2000). 이들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간사용구

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최초의 연구는 강신주 외(1968)의 ‘생활시간관리의 실태조사’이다. 이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그들 가족을 대상으로 시간사용 관리실태를 조사한 것이며, 시간사용에 관한 최초의 연구이면서 전체 가족원 5,559명이 조사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생활시간관련 주요 실태조사는 한국방송공사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된 바 있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1981~1990년 기간 중 5회에 걸쳐 국민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시간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방송정책 및 국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時系列的인 調査資料의 반복으로 사회적 인식은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다.³⁾ 농촌진흥청은 1979년과 1983년, 1993년에 농가주부의 과중한 노동부담을 줄이고 농가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구조와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한 바 있다. 이는 농번기와 농한기를 중심으로 농업노동시간과, 생리적시간, 사회·문화적 시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휴식시간이 부족한 데 기인하는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등 기여한 바가 크다.

Ⅲ. 分析資料의 特性 및 內容

1. 分析資料의 特性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1999년 9월 2~14일까지 13일간 실시한 생활시간조사자료이다. 조사절차를 살펴보면, 각 조사구내 대상

3) 동 조사는 생활시간 배분에 있어 개별활동을 적정 생활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와 응답자의 연령, 가족생활주기, 학력 등의 특성별 자료를 얻지 못하여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가졌음.

가구를 4가구씩 5개조로 분할하여, 9월 3~12일까지 10일 중 2일 동안 정해진 날짜에 시간일지를 기입하도록 하였다.⁴⁾ 조사방법은 조사담당자가 대상가구를 직접방문하여 가구원과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는 면접타계식과 조사대상가구에 조사표를 배포하여 대상가구원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전자는 가구 및 개인 관련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후자는 시간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시간일지(time-diary)의 작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表 1〉 既婚女性の 主要 特性別 分析事例數

(단위: 사례)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		
	유배우	이혼	사별	유배우	이혼	사별	유배우	이혼	사별	유배우	이혼	사별
	15,647	426	3,601	5,140	144	1,203	5,001	140	1,185	25,788	710	5,989
연령												
30세 미만	2,012	22	1	644	12	2	658	10	1	3,314	44	4
30~39세	5,054	110	48	1,632	38	24	1,599	36	22	8,285	184	94
40~49세	4,063	199	240	1,313	54	76	1,311	53	70	6,687	306	386
50~64세	3,496	85	1,052	1,235	33	365	1,141	38	360	5,872	156	1,777
65세 이상	1,022	10	2,260	316	7	736	292	3	732	1,630	20	3,728
경제활동여부												
참여	8,473	296	1,480	2,698	93	505	2,650	97	511	13,821	486	2,496
미참여	7,174	130	2,121	2,442	51	698	2,351	43	674	11,967	224	3,493
직업유형¹⁾												
전문직	389	11	7	103	2	4	104	3	5	596	16	16
기술직 및 준전문직	276	18	15	87	2	4	89	2	3	452	22	22
사무직	571	14	15	195	2	4	182	4	5	948	20	24
서비스·판매직	3,117	185	399	1,063	64	144	1,009	65	143	5,179	314	686
농·임·어업숙련직	1,905	2	612	588	-	211	571	-	211	3,064	2	1,034
기능직	1,025	33	114	310	7	33	326	8	33	1,661	48	180
단순노무직	1,190	33	318	362	16	105	369	15	111	1,921	64	534

註: 1) 경제활동참여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조사를 위한 표본규모는 850개 조사구이며, 각 표본조사구에서 가구번호순으로 20가구를 선정하여 17,000가구가 최종적으로 추출되었다. 조사

4) 1조는 9월 3일과 4일, 2조는 9월 5일과 6일, 3조는 9월 7일과 8일, 4조는 9월 9일과 10일, 그리고 5조는 9월 11일과 12일 조사가 실시되었음.

대상자는 이들 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46,000명이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유효응답자수는 42,973명이고, 시간일지수는 85,906사례이다(통계청, 2000). 본 분석에 활용되는 기혼여성의 시간일지수는 유배우 25,788사례, 이혼 710사례, 사별 5,989사례 등이다. 부인의 혼인상태별 연령, 경제활동여부, 직업유형 등의 분석사례수를 요일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表 1>과 같다.

2. 分析資料의 主要 內容

전체 행동은 대·중·소 분류로 나뉘어진다. 대분류는 전체 9개 유형으로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등이다. 이를 중심으로 조사자료의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유지’의 중분류는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의료적 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 등이다. ‘일’은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구직활동, 일 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 관련 행동 등이다. ‘학습’은 학생의 학교학습, 학습관련 물품구입 등이 포함되며, ‘가정관리’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 등이다.

‘가족 보살피기’에는 미취학자녀, 초·중·고등학생,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그 외 가족 보살피기를 말하며, ‘참여 및 봉사활동’은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돕기, 지역공동체 활동, 사회참여 활동, 자원봉사 등이 포함된다. ‘교제 및 여가활동’은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일반인의 학습,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기타 여가 관련 활동 등이다. ‘이동’은 앞서 살펴본 제반 행동을 위한 이동과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기타’에는 생활시간조사 설문지 기입, 그 외 분류하기 곤란한 행동유형이 포함된다.

IV. 主要 分析結果

1. 既婚女性の 婚姻狀態別 生活時間 配分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은 혼인상태에 따라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물론 가장 많은 시간량을 배분하고 있는 분야는 수면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유지 항목이었으나,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간량을 투입하고 있는 항목을 보면, 이혼부인은 일 항목에 5시간 15분(21.9%)을 할애하였고, 유배우부인과 사별부인은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에 각각 4시간 22분(18.2%), 6시간 7분(25.4%)을 투입하고 있었다. 이어서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 것은 유배우부인은 가정관리 항목 3시간 45분(15.6%), 일 항목 3시간 9분(13.1%)이었고, 이혼부인은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 4시간 19분(18.0%), 가정관리 항목 2시간 9분(8.9%)이었으며, 그리고 사별부인은 가정관리 항목 2시간 38분(11.0%), 일 항목 2시간 35분(10.8%)이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이혼부인은 자기 스스로 生計를 維持해야 하기 때문에 收入을 위한 일에 종사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이해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별부인은 대체로 노인이 많은 관계로 機會不足, 身體的 限界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적으며, 외로움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제 및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정관리 항목과 가족 보살피기 항목의 시간배분은 혼인상태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를 보였다. 유배우부인은 가정관리 항목에 3시간 45분, 가족 보살피기 항목에 1시간 6분을 배분하고 있었으나, 사별부인은 각각 2시간 38분, 20분을 배분하였고, 이혼부인의 경우는 유배우부인 보다 현저하게 적은, 사별부인보다 다소 적은 2시간 9분, 14분의 배분에 그치고 있었다.

〈表 2〉 既婚女性の 婚姻狀態別 曜日 平均 生活時間 配分實態

(단위: 시간, 분, %)

항목	유배우	이혼	사별
개인유지	10:05(42.0)	10:17(42.8)	10:58(45.7)
일	3:09(13.1)	5:15(21.9)	2:35(10.8)
학습	0:00(0.0)	0:02(0.1)	0:00(0.0)
가정관리	3:45(15.6)	2:09(8.9)	2:38(11.0)
가족 보살피기	1:06(4.6)	0:14(1.0)	0:20(1.4)
참여 및 봉사활동	0:04(0.3)	0:08(0.6)	0:06(0.4)
교제 및 여가활동	4:22(18.2)	4:19(18.0)	6:07(25.4)
이동	1:18(5.4)	1:28(6.1)	1:05(4.5)
기타	0:11(0.8)	0:08(0.6)	0:11(0.8)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특별히 관심이 가는 항목은 참여 및 봉사활동의 혼인상태별 시간량의 차이이다. 물론 동 항목은 유배우부인 4분, 이혼부인 8분, 사별부인 6분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시간량을 보인다. 그렇지만 이를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소득을 위한 일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혼부인이 가장 많은 시간량을 투입하였고, 사별부인보다 젊은 연령층이 많은 유배우부인의 경우 가장 적은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간이 많다고 하여 참여 및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오히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 배분실태를 요일별로 살펴보면,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량과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 그리고 이동을 위한 시간량은 대체로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량은 유배우부인의 경우 평일 9시간 58분에서 토요일 10시간 4분으로, 일요일 10시간 42분으로 증가하였고, 이혼부인은 평일 10시간 6분에서 토요일 10시간 44분으로, 일요일 10시간 46분으로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사별부인은 평일 10

시간 58분에서 토요일에는 약간 감소한 10시간 53분으로, 일요일에는 11시간 6분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개인유지 항목을 위한 시간량의 요일별 차이는 혼인상태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였는데, 유배우부인은 44분, 이혼부인 40분, 사별부인 8분의 차이를 나타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유배우부인의 경우 평일 4시간 12분에서 토요일 4시간 27분으로, 일요일 4시간 57분으로 증가하였고, 이혼부인은 평일 4시간 11분에서 토요일 4시간 33분으로, 일요일 4시간 45분으로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사별부인은 평일 6시간 1분에서 토요일 6시간 4분으로, 일요일에는 6시간 46분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의 요일별 차이는 유배우부인과 사별부인의 경우는 동일한 45분의 증가를 보였으나, 이혼부인은 34분의 증가에 그쳤다. 결국 이혼부인은 다른 혼인상태의 부인보다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의 투입이 적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表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일을 하는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시간량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동을 위한 시간량은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주말 및 공휴일에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이동이 더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 배분이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항목은 일, 참여 및 봉사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 항목을 살펴보면, 평일에 이혼부인은 5시간 35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유배우부인의 3시간 25분보다는 2시간 10분, 사별부인의 2시간 41분보다 무려 2시간 54분이 더 많은 것이다. 토요일에도 이혼부인은 4시간 33분 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배우부인의 2시간 59분보다는 1시간 34분, 사별부인의 2시간 40분보다 무려 1시간 53분이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요일의 경우 이혼부인은 4시간 16분 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배우부인의 2

시간 2분보다는 2시간 14분, 사별부인의 2시간보다 2시간 16분이나 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혼부인은 요일에 상관없이 유배우부인 및 사별부인보다 일을 위한 시간량이 현저하게 많음을 보여주었으며, 일을 위한 시간량은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감소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 데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表 3〉 既婚女性の 婚姻狀態 및 曜日別 生活時間 配分實態

(단위: 시간, 분)

구 분	유배우			이혼			사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개인유지	9:58	10:04	10:42	10:06	10:44	10:46	10:58	10:53	11:06
일	3:25	2:59	2:02	5:35	4:33	4:16	2:41	2:40	2:00
학습	0:00	0:00	0:00	0:03	0:00	0:00	0:00	0:00	0:00
가정관리	3:45	3:53	3:49	2:08	2:07	2:15	2:39	2:37	2:32
가족 보살피기	1:09	1:04	0:55	0:14	0:17	0:13	0:21	0:20	0:12
참여 및 봉사활동	0:04	0:03	0:02	0:08	0:06	0:03	0:06	0:06	0:03
교제 및 여가활동	4:12	4:27	4:57	4:11	4:33	4:45	6:01	6:04	6:46
이동	1:16	1:20	1:23	1:26	1:30	1:33	1:03	1:08	1:10
기타	0:11	0:10	0:10	0:09	0:10	0:09	0:11	0:12	0:11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량은 유배우부인의 경우 요일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거나 주말 및 일요일에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혼부인은 큰 차이가 없거나 일요일에 다소 증가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사별부인은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 부인의 참여 및 봉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량은 매우 미미하였는데, 이는 시간이 많이 나는 토요일 및 일요일에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배우부인의 경우 동 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평일 4분, 토요일 3분, 일요일 2분으로, 이혼부인도 평일 8분, 토요일 6분, 일요일 3분으로, 그리고 사별부인도 평일과 토요일 각각 6분에서 일요일 3분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도 원인일 수 있겠으나

그 보다는 동 활동을 위한 관심부족과 다른 활동, 예를 들면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투입이 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혼인상태에 따른 한국부인의 요일별 생활시간 배분실태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이혼부인은 주말과 일요일에도 소득보장을 위한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토요일 및 일요일의 여유 시간을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하여 보다 많이 투입하기보다는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既婚女性の 婚姻狀態 및 年齡別 生活時間 配分實態

기혼여성의 생활시간을 혼인상태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의 주요 내용은 <表 4>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을 위한 시간량을 연령 및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유배우부인(2시간 1분)보다 사별부인(4시간 3분)이, 사별부인보다 이혼부인(5시간 3분)이 일을 많이 하고 있었고, 30대 연령층에서는 유배우부인(2시간 59분)보다 사별부인(5시간 50분), 사별부인보다 이혼부인(5시간 57분)이 일을 위한 시간량 투입이 많았다. 40대 연령층과 50~64세 연령층에서는 유배우부인(3시간 56분, 3시간 22분)보다 이혼부인(5시간 27분, 4시간 33분)이, 이혼부인보다 사별부인(6시간 9분, 3시간 40분)이 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사별부인(1시간 32분)이 일을 가장 적게 하고 있었고, 다음은 이혼부인(1시간 47분)이었으며, 유배우부인(2시간 25분)은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이는 이혼 또는 사별부인보다는 유배우부인이 보다 젊은 노인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한 연령별로 다시 살펴보면, 유배우부인 중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연령층은 40~49세 연령층이었으며, 30세 미만 연령층은 일을 가장 적게 하고 있었다. 사별부인의 경우는 40~49세 연령층이 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이어서 30~39세 연령층, 30

〈表 4〉 既婚女性の 年齢 및 婚姻狀態別 曜日平均 生活時間 配分實態

(단위: 시간, 분)

구 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유배우	이혼	사별	유배우	이혼	사별	유배우	이혼	사별	유배우	이혼	사별	유배우	이혼	사별
개인유지	10:23	10:41	10:02	10:01	10:10	10:03	9:49	10:22	9:50	10:08	10:05	10:16	10:53	10:46	11:29
일	2:01	5:03	4:03	2:59	5:57	5:50	3:56	5:27	6:09	3:22	4:33	3:40	2:25	1:47	1:32
학습	0:00	0:11	0:00	0:01	0:06	0:00	0:01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가정관리	3:30	1:08	2:10	3:46	2:03	1:31	3:54	2:10	2:32	3:55	2:26	2:56	3:31	2:37	2:29
가족 보살피기	2:26	0:41	2:33	1:40	0:19	0:36	0:25	0:10	0:11	0:27	0:11	0:29	0:23	0:00	0:15
참여 및 봉사활동	0:01	0:00	0:00	0:03	0:02	0:04	0:04	0:06	0:04	0:05	0:08	0:07	0:05	1:01	0:05
교제 및 여가활동	4:18	4:37	4:20	4:03	3:38	3:04	4:17	4:16	3:35	4:33	4:50	4:59	5:31	6:37	7:06
이동	1:11	1:31	0:52	1:16	1:36	1:43	1:24	1:21	1:28	1:19	1:35	1:21	0:59	1:01	0:53
기타	0:10	0:08	0:00	0:11	0:09	0:09	0:10	0:08	0:11	0:11	0:12	0:12	0:13	0:11	0:11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세 미만 연령층이었으며, 가장 적은 시간을 일하는 연령대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이었다. 이혼부인은 30대가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었고, 다음은 40~49세 연령층, 30세 미만 연령층의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시간동안 일을 하는 연령층은 65세 이상의 노인층이었다.

일 항목을 위한 기혼여성의 투입 시간량을 혼인상태 및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39세 이하 및 50~64세 연령층의 이혼부인이, 40~49세 연령층의 사별부인이,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층의 유배우부인이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40~49세 연령층 사별부인의 일을 위한 시간량은 6시간 9분이나 되었다. 이와 같이 30~40대 이혼 및 사별부인의 일하는 시간량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연령층의 부인은 유배우부인과는 달리 생계유지의 책임을 담당하는 주부양자(main breadwinner)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부분은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가능성이 높아 자녀양육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취업하는 시간동안 이들 가정의 관리 및 자녀보호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가정관리 및 자녀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립이 적극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 항목에 투입되는 시간량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30세 미만 부인의 경우 유배우부인이 각각 3시간 30분, 2시간 26분이었으나 이혼부인은 각각 1시간 8분, 41분에 불과하였다.⁵⁾ 30~39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는 유배우부인이 각각 3시간 46분, 1시간 40분이었으나 이혼부인은 각각 2시간 3분, 19분, 사별부인은 각각 1시간 31분, 36분에 불과하였다. 또한 40~49세 연령층 부인의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량은 유배우부인이 각각 3시간 54분, 25분이나 되었으나 사별부인은 각각 2시간 32분, 11분이었고, 이혼부인은 더

5) 30세 미만 사별부인의 경우는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량은 2시간 33분으로 유배우부인의 시간량(2시간 26분)보다 많이 나타났으나, 이는 분석대상 사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어 논의에서 제외함.

욱 적은 시간량을 보여 각각 2시간 10분, 10분에 머물렀다.

많은 시간량을 투입하고 있는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은 혼인상태 및 연령층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연령이 상승할수록 많았으며, 각 연령층에서는 혼인상태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적은 시간량을 투입하고 있는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은 3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유배우부인이 요일평균 1분, 그 외의 부인은 매우 미흡하였고, 30~39세 연령층에서는 사별부인 4분, 유배우부인 3분, 이혼부인 2분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40세 이상부터는 이혼부인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40~49세 연령층에서는 이혼부인 6분, 유배우 및 사별부인 각각 4분, 50~64세 연령층에서는 이혼부인 8분, 사별부인 7분, 유배우부인 5분, 그리고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이혼부인 1시간 1분, 유배우 및 사별부인 각각 5분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혼부인의 경우 학습을 위한 시간량이 30세 미만 11분, 30~39세 연령층 6분으로 나타나 젊은 부인층에서 학교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0대와 40대의 유배우부인, 50~64세의 사별부인에게서도 엿볼 수 있어 기혼여성의 만학이 없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3. 既婚女性の 婚姻狀態, 經濟活動與否 및 職業類型別 生活時間 配分實態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실태를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表 5>에 나타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일하는 시간은 이혼부인이 요일평균 7시간 31분으로 유배우부인(5시간 58분) 및 사별부인(6시간 6분)보다 현저하게 많았다. 이는 이혼부인의 경우 사별부인보다는 연령층이 낮아 자녀의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유배우부인과 같이 남편에 의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족부양책임을 전적으로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表 5〉 既婚女性の 婚姻狀態 및 經濟活動與否別 曜日平均 生活時間 配分實態

(단위: 시간, 분)

구 분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유배우	이혼	사별	유배우	이혼	사별
개인유지	9:50	10:05	10:05	10:22	10:46	11:32
일	5:58	7:31	6:06	0:11	0:08	0:20
학습	0:01	0:02	0:00	0:00	0:02	0:00
가정관리	2:58	1:38	2:15	4:39	3:20	2:52
가족 보살피기	0:35	0:08	0:11	1:40	0:27	0:25
참여 및 봉사활동	0:03	0:03	0:04	0:02	0:14	0:05
교제 및 여가활동	3:04	2:56	3:49	5:42	7:27	7:38
이동	1:21	1:30	1:19	1:13	1:23	0:56
기타	0:10	0:07	0:11	0:11	0:13	0:12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량은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혼인상태별로 비교하여 보면,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 시간량은 비경제활동의 유배우부인이 각각 4시간 39분, 1시간 40분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유배우부인의 2시간 58분, 35분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 동 항목을 위한 시간량은 비경제활동의 이혼부인은 각각 3시간 20분, 27분이었으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혼부인은 불과 1시간 38분, 8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의 사별부인은 각각 2시간 52분, 25분이었으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별부인은 2시간 15분, 11분이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인은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도와 줄 배우자가 없는 이혼 및 사별부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사별부인보다 이혼부인의 경우는 자녀의 연령이 어려 가사지원이 어렵고 오히려 자녀를 보호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가정의 의존적 가족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은 안정된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경제활동참여여부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의 경우, 사별부인이 7시간 38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나타내었고, 다음은 이혼상태의 7시간 27분, 유배우부인 5시간 42분으로 배우자가 없는 부인이 동 활동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사별부인이 3시간 49분으로 가장 많은 참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은 경제활동참여 부인의 경우와 유사하였으나 유배우부인의 참여시간이 3시간 4분, 이혼부인은 2시간 56분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활동참여 이혼부인의 일에 대한 애착심을 엿볼 수 있어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부족과 맞물려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였다.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경제활동여부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부인의 경우는 혼인상태별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부인은 혼인상태에 따라 차이가 없이 요일평균 3~4분의 참여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부인의 경우는 유배우부인과 사별부인은 각각 2분, 5분에 불과하였으나, 이혼부인은 무려 14분이나 참여하고 있었다. 이를 혼인상태별로 다시 살펴보면, 유배우부인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3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2분)보다 참여 및 봉사활동에 더 참여하고 있었고, 사별부인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5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4분)보다 동 활동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그리고 이혼부인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14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3분)보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를 직종을 중심으로 혼인상태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表 6>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인의 경우 일을 위한 시간량은 유배우부인(5시간 45분)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이혼부인(4시간 49분), 사별부인(4

〈表 6〉 既婚女性の 職種 및 婚姻狀態別 曜日平均 生活時間 配分實態

(단위: 시간, 분)

구 분	전문직			기술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업·임업·어업숙련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유배우	이혼	사별	유배우	이혼	사별	유배우	이혼	사별	유배우	이혼	사별	유배우	이혼 ¹⁾	사별	유배우	이혼	사별	유배우	이혼	사별
개인유지	9:59	9:21	9:57	10:02	11:02	10:05	9:57	9:32	9:17	9:39	10:04	9:44	10:03	9:50	10:26	9:52	9:54	10:02	9:54	10:14	10:08
일	5:45	4:49	4:04	4:46	5:03	4:18	5:16	5:32	4:13	6:27	7:52	6:52	5:17	9:45	5:26	6:41	8:22	6:50	5:35	4:04	5:56
학습	0:03	0:00	0:00	0:03	0:00	0:00	0:01	0:45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가정관리	2:25	2:06	2:32	2:45	1:09	2:29	2:47	1:23	1:59	2:49	1:38	2:14	3:35	0:50	2:18	2:47	1:44	2:12	3:09	1:40	2:10
가족 보살피기	0:46	0:06	0:17	1:01	0:25	0:05	0:51	0:11	0:28	0:35	0:08	0:11	0:19	0:00	0:09	0:32	0:10	0:12	0:33	0:07	0:14
참여 및 봉사활동	0:00	0:19	0:00	0:04	0:00	0:00	0:01	0:00	0:00	0:02	0:05	0:01	0:07	0:00	0:09	0:01	0:00	0:01	0:03	0:00	0:06
교제 및 여가활동	3:15	5:14	5:02	3:16	3:50	4:39	3:19	4:02	5:36	2:59	2:50	3:32	3:14	3:15	4:08	2:44	2:07	3:08	3:13	2:54	3:49
이동	1:39	1:53	1:59	1:56	2:26	2:19	1:39	2:06	2:20	1:19	1:15	1:16	1:10	0:20	1:11	1:14	1:36	1:24	1:23	1:56	1:26
기타	0:08	0:12	0:09	0:07	0:05	0:05	0:09	0:09	0:07	0:09	0:08	0:10	0:15	0:00	0:13	0:09	0:07	0:11	0:10	0:05	0:11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註: 1) 농업·임업·어업숙련직 이혼부인의 토요일 및 일요일 사례가 없어 평일사례만으로 산출됨.

시간 4분)의 순이었다. 그리고 교제 및 여가활동은 이혼 및 사별상태의 부인이 각각 5시간 14분, 5시간 2분으로 유배우부인의 3시간 15분보다 현저하게 많았는데, 이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이혼 및 사별부인은 대체로 젊은 연령층이 많아 이성교제를 하거나 또는 경제적 여유를 여가에서 찾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이혼부인이 유배우 및 사별부인보다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 직종으로는 기술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업·임업·어업숙련직, 기능직 등 대부분의 직종이었다.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종사직종별 혼인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전문직 종사의 경우 사별부인이 가장 많은 2시간 32분이었고, 이혼부인은 가장 적은 2시간 6분이었으며, 그 외의 전체 직종은 유배우부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관리를 위하여 할애하고 있었는데 이는 남편, 자녀 등을 위한 家事가 그 만큼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이혼부인보다는 사별부인의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사별부인이 이혼부인보다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자녀도 상대적으로 많고 자녀의 연령도 높아 그 만큼 가정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결과일 것으로 추측된다.

교제 및 여가활동은 전문직의 경우는 이혼부인이 5시간 14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유배우부인은 3시간 15분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전문직 외의 전체 직종에서는 사별부인이 이혼 및 유배우부인보다 많은 시간을 동 활동을 위하여 할애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부인의 혼인상태를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면, 일하는 시간은 유배우부인의 경우 기능직이 6시간 41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비스·판매직이 6시간 27분이었으며, 가장 적은 시간량을 보인 직종은 기술직 및 준전문직으로 4시간 46분이었다. 이혼부인은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이 9시간 45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가장 적은 시간 일하는 직종은 단순노무직으로 4시간 4분에 불과하였다. 사별부인은 서비스·판매직이 6시간 52분, 기능직 6시간 50분으로 많은 시간

을 소득을 위한 일에 할애하고 있었으며, 전문직이 4시간 4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는 유배우부인의 경우,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이 3시간 35분을 사용하여 가장 많았고, 전문직은 2시간 25분에 불과하여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혼부인은 전문직이 2시간 6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관리를 위하여 투입하였고,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이 50분으로 가장 적었다. 사별부인 중 가정관리를 위하여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직종은 전문직으로 2시간 32분이었으며, 사무직은 가장 적은 시간인 1시간 59분으로 나타났다.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을 살펴보면, 유배우부인 중에는 사무직 근무자가 3시간 19분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직이 2시간 44분으로 가장 적었으나 그 차이는 35분에 그쳤다. 그러나 이혼부인의 동 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전문직이 5시간 14분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직은 2시간 7분에 불과하여 무려 3시간 7분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사별부인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사별부인 중 사무직종 사부인의 동 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5시간 36분, 기능직 종사부인은 3시간 8분으로 무려 2시간 28분의 차이를 보였다.

4. 既婚女性의 婚姻狀態別 家族共有時間 生活時間 配分實態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가족공유시간을 가장 많이 가지는 경우는 유배우부인으로 요일평균 2시간 18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사별부인 1시간 11분, 이혼부인 42분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혼부인보다는 사별부인이, 사별부인보다는 유배우부인이 자녀가 많고, 자녀가 학생이어서 돌보아 주어야 할 시간이 많으며, 또한 남편가족과도 더 많은 교류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가족과의 식사는 유배우부인이 53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사별부인 38분, 이혼부인 18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량은 미취학자녀 및 초·중·고등학교 학

생,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의 존재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를 무시하고 살펴보면, 유배우부인이 1시간 2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었고, 다음은 사별부인 18분, 이혼부인 13분으로 혼인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表 7〉 既婚女性の 婚姻狀態別 曜日平均 家族共有時間

(단위: 시간, 분)

구 분	유배우	이혼	사별
가족과의 식사	0:53	0:18	0:38
가족 보살피기	1:02	0:13	0:18
-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0:44	0:08	0:14
• 신체적 돌보기	0:23	0:03	0:05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18	0:03	0:08
• 기타 미취학자녀 돌보기	0:03	0:02	0:01
-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13	0:05	0:03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8	0:04	0:03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5	0:01	0:00
- 배우자 보살피기	0:04	0:00	0:00
-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0	0:0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17	0:09	0:13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0:06	0:02	0:02
계	2:18	0:42	1:11

특히 미취학자녀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량은 유배우부인이 44분, 사별부인 14분, 이혼부인 8분으로 나타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량은 유배우부인 13분, 이혼부인 5분, 사별부인 3분이었다. 가족 및 친척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은 유배우부인 17분, 사별부인 13분, 이혼부인 9분으로 유배우부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이들 부인이 이혼 또는 사별상태의 부인보다 가족 및 친척과 동거하거나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보살피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만을 선택하여 부인의 혼인상태별로

미취학자녀를 보살피는 시간량을 살펴본 결과는 <表 8>에 잘 나타난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유배우부인은 2시간 7분을 그들 자녀를 위하여 할애하고 있었으나 이혼부인은 1시간 13분, 사별부인은 1시간 9분에 그쳐 유배우부인의 미취학자녀는 이혼부인의 미취학자녀보다 54분, 사별부인의 미취학자녀보다 58분 더 많은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미취학자녀의 신체적 돌보기를 하는 시간량은 유배우부인이 1시간 14분으로 이혼부인의 37분, 사별부인의 27분보다 현저하게 많았으며, 미취학자녀에게 책 읽어주기 또는 함께 놀아주는 시간량은 유배우부인 53분, 이혼부인 36분, 사별부인 42분으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혼 및 사별부인의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유배우부인의 미취학자녀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이혼 및 사별 가정 자녀의 신체적 및 정서적 보호를 위하여 정책적 배려가 적극 요구되어진다. 예를 들면, 가정도우미제도의 활성화, 보육시설 확충 및 이용료 지원 등을 통한 보육시설 접근도 제고 등이 적극 요구되어진다.

<表 8> 未就學子女 家庭의 曜日平均 未就學子女 보살피기 時間量
(단위: 시간, 분)

구 분	유배우	이혼	사별
미취학자녀 보살피기	2:07	1:13	1:09
- 신체적 돌보기	1:14	0:37	0:27
-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53	0:36	0:42

5. 既婚女性의 婚姻狀態 및 經濟活動與否에 따른 時間不足 與否 및 理由

기혼여성이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는지의 여부를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별로는 사별부인보다는 이혼부인이,

이혼부인보다는 유배우부인이 시간부족을 현저하게 많이 느끼고 있었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이 경제활동미참여 부인보다 시간부족을 심하게 나타내었다. 즉,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미참여 유배우부인은 53.6%, 경제활동참여 유배우부인 83.7%이었고, 경제활동미참여 이혼부인 32.8%, 경제활동참여 이혼부인 82.5%이었으며, 그리고 경제활동미참여 사별부인은 14.0%, 경제활동참여 사별부인 62.5%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별부인과 이혼부인의 경제활동미참여자만이 시간부족을 다소 적게 느낄 뿐 대부분의 부인이 생활시간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表 9〉 既婚女性の 經濟活動參與 與否 및 職種別 時間不足을 느끼는 比率¹⁾

(단위: %)

구 분	유배우	이혼	사별
경제활동여부			
참여	83.7	82.5	62.5
미참여	53.6	32.8	14.0
직업유형²⁾			
전문직	93.1	100.0	84.9
기술직 및 준전문직	92.4	100.0	59.5
사무직	89.7	88.8	77.4
서비스·판매직	83.5	80.3	66.3
농업·임업·어업숙련직	76.2	-	63.0
기능직	89.7	88.9	76.9
단순노무직	78.0	75.8	61.1

註: 1) 가끔 느낌과 항상 느낌을 합한 비율임.

2) 경제활동참여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경제활동참여 부인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여 보면, 사별부인의 일부 직종 종사자만이 상대적으로 시간부족을 덜 느끼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직종에서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시간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전문직, 기술직 및 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이 제시하고 시간부족의 이유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表 11>에 잘 나타난다. 대부분의 직종에서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기술직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별부인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자녀양육 및 집안 일 때문’, ‘시간관리를 못하여’,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유배우부인은 ‘일 때문’ 외에도 ‘자녀양육 및 집안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를 직종별로 세분하여 보면, 먼저 전문직 종사자는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이혼부인이 69.8%로 가장 많았고, 유배우부인은 62.6%이었으며, 사별부인은 비교적 낮은 47.0%이었다.

그 다음의 이유로 유배우부인은 ‘자녀양육 및 집안 일 때문’이 26.7%이었으며, 사별부인은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라는 이유가 23.0%나 있었다. 기술직 및 준전문직 종사자는 이혼부인의 62.8%, 유배우부인의 52.6%가 ‘일 때문’에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었으며, 사별부인은 ‘자녀양육 및 집안 일 때문’ 39.9%, ‘시간관리를 못하여’ 32.8%,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 27.3% 등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이혼부인은 ‘일 때문’에 시간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어느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이혼부인보다 높은 80.2%이었으며, 사무직 종사 유배우부인은 어느 다른 직종의 유배우부인보다 낮은 48.2%에 머물러 대조를 이루었다. 농업·임업·어업숙련직에 종사하는 사별부인은 어느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사별부인보다 ‘일 때문’에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 무려 91.0%나 되었다.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부인의 경우도 ‘일 때문’에 시간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고, 유배우부인의 경우는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이 그 다음의 주요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기혼여성의 근무직종별 시간부족 이유를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는 것은 이해를 돕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주요한 내용만을 설명하면, 유배우부인 중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비율은 농업·임업·어업숙련직 종사자(76.2%)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문직 종

사자, 기능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단순노무직 종사자, 기술직 및 준전문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자녀양육 및 집안 일 때문’에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율은 사무직 종사자(37.0%)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단순노무직 종사자, 기능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혼부인 중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비율은 사무직 종사자(80.2%)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능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술직 및 준전문직 종사자, 단순노무직 종사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자녀양육 및 집안 일 때문’에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율은 유배우 부인 및 사별부인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오히려 ‘교제 및 여가활동 때문’에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사별부인 중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비율은 농업·임업·어업숙련직 종사자(91.0%)가 매우 높았고, 다음은 서비스·판매직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기능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등의 순이었다. 기술직 및 준전문직 종사자는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없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자녀양육 및 집안 일 때문’, ‘시간관리를 못해서’, 그리고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V. 分析結果의 含意 및 生活時間 配分 效率化 方案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한국인의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전체 한국인에게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과 학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주말과 공휴일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 여성 및 노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경제활동미참

여 이혼부인만이 요일평균 14분 동안 참여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을 뿐 그 외의 부인은 경제활동여부,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5분 이내의 매우 적은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었다. 참여 및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가에 비추어 보아 시간배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경제활동미참여 부인의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많은 시간량을 고려하면 더욱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할 분석결과임에 틀림없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혼여성이라고 하여 가족이나 이웃,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활동미참여 부인은 참여 및 봉사활동에의 시간배분이 보다 많이 필요하며, 이는 교제 및 여가활동과 개인유지시간의 감소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주말 및 공휴일의 시간배분시 적극 고려되면 바람직 할 것이다.

부인의 연령은 생활시간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家事勞動時間은 30대 부인이 제일 많고, 30세 미만의 주부와 50대는 적으며, 餘暇時間은 20대가 가장 많고 30~40대는 감소하며 40~50대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강신주 외, 1968; 김외숙, 1977; 박원임, 1976). 본 연구결과 가정관리시간은 유배우부인의 경우 30대와 40대, 5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가시간의 경우도 유배우부인은 30세 미만보다는 30대와 40대에 감소하다가 50대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배우부인의 30대와 40대는 대체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시간배분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제활동참여 부인에게 있어서 혼인상태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라는 이중적 역할부담을 부여하는 주요 변수이다. 조희금(1997)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35분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아담스(Adams, 1980)의 연구결과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30분대와 유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이연주, 1984, 재인용). 따라서 취업기혼여성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이중적 부담이며, 특히 어린 자

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시된다. 본 연구에서 가정관리는 자신의 가족 및 가구를 위한 가정유지 및 관리 행동으로 요리, 세탁, 청소, 물품 구입, 가정경영 등 家事가 포함되어 있는 활동인데,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활동미참여 부인은 4시간 39분(19.4%)으로 경제활동참여 부인의 2시간 58분(12.4%)보다 1시간 41분 적게 배분하고 있었다. 특히 음식준비 및 정리를 위한 시간량은 경제활동참여 부인이 1시간 44분, 경제활동미참여 부인은 2시간 26분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김승권 외, 2001). 요일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여 부인의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평일보다는 주말 및 공휴일에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미참여 부인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 가정관리를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경제활동참여 부인들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 배분상의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

가사노동에 대해 여성이 부담을 갖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성과 연결되어 있는 결혼 및 가족의 역할과 관련하여 개인이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성역할 태도’ 때문이다. 가사노동분담에서의 공평성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태도는 부인의 태도가 전통적인 성역할을 지향할수록 남편은 가사노동을 적게 하게 되고, 평등한 성역할을 지닌 부인일수록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을 불공평하게 지각한다(차성란, 1998; Greenstein, 1996a; 1996b). 가정관리의 항목별 배분시간량은 성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 2시간 40분, 남자 20분이었다(김승권 외, 2001). 물론 이는 미취업 여성, 특히 전업주부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감안할 경우 취업여성이라 하더라도 가정관리를 위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본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경제활동참여 기혼여성의 가사를 위한 시간배분의 부족이 남편에 의하여 채워질 수 있으면 다행스러울 것이나 우리나라 남편이 여전히 강하게 갖고 있는 성역할 분리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취업여성의 이중역할부담은 지대하며, 특히 남편이

없는 이혼 및 사별부인의 경우에는 더욱 더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부족을 현저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간배분이 가능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가족 보살피기는 경제활동미참여 부인은 1시간 40분, 경제활동참여 부인은 35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 이는 경제활동참여 부인의 경우 평일에 일을 함으로써 절대시간 부족에 따라 돌볼 수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미취학자녀와 초·중·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보살피는 시간량이 경제활동미참여 부인 1시간 28분, 경제활동참여 부인 31분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만을 관찰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참여가 많은 이혼 및 사별부인이 유배우부인보다 미취학자녀 돌보는 시간이 약 1시간 가량 적게 나타났다는 점은 이들 가정의 자녀양육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즉, 생계유지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혼 및 사별가정의 부인은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배분이 결코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여가는 노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도 있으며, 노동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Kelly, 1972). 여가가 창조적인 노동과 같이 생산적이며 가치롭다고 생각될 경우 그로 인한 만족과 성취감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으므로 '노동'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여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행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에 발전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활동참여 부인의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배분은 경제활동미참여 부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이혼부인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로 인한 강박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여가활용이 적절하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의 노동과 여가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위한 시간배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가족공유시간을 설명해주는 유용한 이론으로서 체계론적 관점에서는 동 시간을 家族의 要求와 資源에 의한 管理活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가족은 친구나 친척, 이웃과 같은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공유시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본다(Dollahite & Rommel, 1993). 가족이 공유하는 시간 및 활동을 통해 가족원은 개인적 발달, 역할 및 의무수행들을 발전시키고 이행하기 때문에 가족원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토대가 되는 시간자원의 사용방식으로 가족공유시간을 이용함에 있어 ‘共有’의 개념은 개인과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공유시간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가족원에게 할애하고 있었으며(김승권 외, 2001), 본 분석결과에서도 유 배우부인이 이혼부인 및 사별부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공유시간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와 가족이 없는 이혼 및 사별가정의 가족원은 주부양자의 소득활동을 위한 ‘일’ 항목에의 시간투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가족공유시간의 부족으로 의존적 가족원의 정서적 및 신체적 보살핌이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위한 시간배분을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분석결과의 함의와 함께 시간배분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는 성평등 사회의 달성과 여성의 자아욕구를 충족시켜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 시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가정에서의 전통적 성 역할 시각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남성의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에서의 평등한 성 역할이 기대되며, 이를 위해서는 남성이 기존의 가치관에서 탈피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함에 따

라 이를 위한 남성의 성 역할 변화를 위한 교육과 계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위에서 논의한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 시간의 부족은 남편이 없는 이혼부인 및 사별부인에게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 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립이 더욱 요구된다. 이들 가정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은 평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많은 시간을 경제활동에 배분하고 있었다. 또한 이혼부인 및 사별부인은 가족공유를 위한 시간배분이 여의치 않는데, 가족공유시간의 부족은 가족구성원으로 하여금 심리적 고독감과 외로움,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가정관리, 가족원 보살피기 등을 위한 조력자 또는 지원시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가정의 증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40대 남성의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혼자녀를 둔 사별가정의 증가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이들 가정을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무보수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단체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돕는 행위인 지역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은 매우 미약하였으며, 동 활동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매우 미약한 시간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배분은 증가하고 있음은 동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계몽의 약화, 인식부족 등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 및 이미지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과학적 자원봉사인력 관리가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 강신주 외, 「생활시간관리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6, 1968.
- 김승권 외,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와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통계청, 2001.
- 김외숙,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조사연구-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 김외숙 외, 『시간의 사용과 관리』, 교문사, 2000.
- 농촌진흥청,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분석보고서』, 1979, 1984, 1994.
- 문숙재,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1996.
- 박원임, 「도시 주부의 여가시간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6.
- 서병숙·임정빈, 『가정관리학』, 동명사, 1983.
- 이연주,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제4호, pp.131~145, 1984.
- 조희금,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1호, pp.1~14, 1997.
- 통계청,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2000.
- 차성란,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127, pp.139~152. 1998.
- 畠井光映, 『家庭經營學』, 放送大學教育振興會, 1981.
- Dollahite, D.C. & Rommmel, J.I., "Individual and Relationship Capital: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on Famili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1), 1993.

Feldman, V.P. & Hornik, J., "The Use of Time: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pp.407~419, 1981.

Greenstein, T.N., "Gender Ideology and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Effects on Marital Quality", *Social Forces*, Vol.74. No.3, pp.1029~1043, March 1996a.

_____,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pp.585~595, August 1996b.

Kelly, J. R., "Work and Leisure: A Simplified Paradigm", *Journal of Leisure Research*, Winter 1972.

Szalai, A. (ed.), *The Use of Time*, The Hague: Mouton, 1972.

Summary

The State and Efficiency in Time Allocation of Married Korean Women by Marital Status

Seung-kwon Kim · Su-jin Song

Individual's view of time as resource has recently been geared toward making the best use of time as the basic unit of human life in order to deepen the contex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aximize quality of life. The quality of one's time can be enhanced depending on how efficiently one allocate, manage, and spend the quantity of time.

The present study aims to conduct an in depth examination of the first time-allocation survey carried out in Korea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1999 and analyze differences and identify problems in time allocation among married women according to their marital statu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long the way, strategic plan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ime allocation.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atterns of time allocation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vary widely depending on their marital status. The largest portion of their time in general is spent on 'self-care' which includes time allocated for sleep. However, divorced women are found to spend the next largest portion of their time on work, while widowed women and women with spouse spend the second largest portion their time on 'leisure and friends/acquaintances'.

Divorced women are found to spend significantly more time at work than widowed women and women with spouse do. This is presumably a result stemming from the fact that divorced women,

unlike women with spouse present, are highly responsible for household livelihood not only because they do not have income-earning husbands, but also because they are generally younger than their widowed counterparts and therefore are less likely to have income-earning children. Divorced and widowed women in their thirties/forties as compared with other groups are found to spend much more time on work. This may be not only because they—unlike women with spouse present—must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nd role as the main breadwinner for the family, but also because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school-aged children and are responsible for earning money for bringing up and educating them.

Unemployed women, regardless of their marital status, are found to spend more time on household and family care than employed women. This implies that there is an accentuated policy need for paying particular heed to social support toward helping divorced women balance their work and family lives.

Koreans in general—irrespectiv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and employment status—are found to devote little time to voluntary activities, even during weekends or holidays. Non-working women and elderly people, in particular, spend very limited amount of time participating in voluntary activities despite having relatively much spare time.

Divorced and widowed women as compared to women with spouse are found to suffer from lack of time to care for their preschool children due to other obligations. This calls for more policy attention to be placed on the protection of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children in these female-headed households. For instance, the availability/accessibility of desired services should be ensured through the expansion of home-helper programs, educare centers, and financial aid programs.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time management strategies

and policy options can be considered.

First, more time needs to be allocated, especially in the case of married non-working women, to voluntary activities. This can be made possible by reducing time spent on friends/acquaintances, leisure activities, and self-care.

Second, it is hard for many divorced and widowed women to allocate much time to household and family care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engaging in income-earning activities. Therefore,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enhance th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home-helper programs and daycare services.

Third, cultural/leisur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working married women who generally have little or no time for leisur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th, the longstanding inequalities in gender roles must be redressed. To do this would require men to escape from their traditional 'male gender role' and assume an increased, if not equal, role in household tasks and family care.